

청년일자리 발굴 ·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익산시, 현장 확대간부회의 열고 주요 현안 논의 정헌을 시장 “청년 꿈 실현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익산시(시장 정헌을)는 4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현장 확대간부회의는 국·소·단장,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6개의 핵심 현안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이날 열린 현장 확대간부회의는 우수공무원 표창과 이민식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장의 현황보고, 부서별 현안사업 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

행되었으며 정헌을 익산시장의 당부 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주요 안건은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등 2019년도 익산시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2019 전국소년체전 개최, KTX익산역 복합환승체계 구축 등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부서별 보고가 있는 후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정시장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



익산시는 4일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정헌을 시장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그동안은 익산의 도약을 위한 양분을 축적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야 하는 시기다. 익산의 힘찬 도약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군산소방서, 안전문화 정착

‘한국119소년단원’ 모집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도 한국119소년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한 단원과 지도교사는 안전교육 행사와 병행하는 입단식, 지도교사 협의회 구성 운영, 119소방안전 체험 캠프 운영, 지도교사 소방안전 연수 과정 운영, 119소방동요 대회와 119안전뉴스 경진 대회 참여, 전국 소년단 교류와 안전문화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 군산지역 한국119소년단은 5개대 113명으로 입단식, 진로체험·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고 항공기 탈출체험 등 119소년단 안전체험캠프 참석,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로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한국119소년단 가입 관련 내용은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www.young119.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담당자 조유진(☎ 063-450-0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963년 창단 이래 매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19소년단은 조기 안전문화 정착과 차세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건강한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의정활동 돌입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21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제217회 임시회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군산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상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빙기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

문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정책대안과 시민불편사항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2019년 본 예산에 삭감돼 미반영 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 아동센터 관련 예산들과 지역현안 및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들이 포함됐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는 해빙기를 맞아 주요사업장과 위험요인 및 주민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책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그 길을 찾다’... 군산시,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개최

군산시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내로 이주한 귀농귀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군산시 귀농 귀촌 그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2019년 귀농귀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귀농 귀촌활성화 지원, 귀농 농

업창업자금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동아리 활동비 지원, 농촌생활에 필요한 실용교육, 재능기부사업 등 농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과 귀농 귀촌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안내,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납품 방법 등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호성 귀농귀촌협의회회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많은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과 주민 간의 화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과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 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읍면별로 간담회를 실시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납세자의 날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 수여

군산시가 2019년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납세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두 번째로 (주)삼원중공업, 하이효경금속(주), 태광정밀화학(주), 강옥자(발산공업), 서

순철(항도약국) 등의 5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표창 수여자는 3년 동안 매년 5천만원(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우수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조건이 완화되며,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학교 입학식이 4일 대학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원광대, 2019학년도 입학식 거행

3715명 입학 허용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2019학년도 입학식이 4일 오전10시부터 허종규 원광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보직교수와 교직원, 신입생과 학부모 등 참석한 가운데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거행됐다.

원불교학과 정진법 군을 비롯해 모두 3,715명이 입학한 원광대 2019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은 정진법군이 대신한 학생 대표 선서를 통해 “재학하는 동안 학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열의와 성심으로 면학에 정진하여 지역을 견우 하고, 도의를 실천할 줄 아는 유능한 인재가 되어 사회발전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말고, 긴 안목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라”고 말했다.

이어 “원광의 교육이념은 역사를 선도해 나가는 ‘개벽의 일꾼’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물질을 개벽하는 과학자와 경영인, 제도를 개벽하는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정신을 개벽하는 종교인과 사상가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고, “물질개벽, 제도개벽, 정신개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살기 좋은 사회, 활기 넘치는 국가, 미래가 있는 지구의 승고한 이상 실현을 위해 도전과 열정과 패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종규 이사장은 “원대한 목표를 세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철저한 시간관리와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독서와 토론, 속 깊은 사색과 함께 훌륭한 스승님 가까이에서 문고 배우기를 즐겨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신입생 대표에게 학교 배지를 전달한 박맹수 총장은 훈사를 통해 “앞으로 4년 또는 6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반짝거리고 가장 깊은 추억으로 남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게 될 이곳 원광대에서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잘 다지길 바란다”며, “작은 일에 연연하지

익산시,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로 시민 재산권 보호

석탄동·영만2지구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익산시(시장 정헌을)는 석탄동지구, 영만2지구를 2019~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해 2개 지구 모두 사업지구로 지정 완료됐다.

석탄동지구와 영만2지구를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70% 이상 받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지구의 면적은 31만1,361㎡, 767필지로 모두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2030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경제설정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토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